

쌀·라면·동전...기부천사들 있어 훈훈한 세밑

함평 익명의 독지가 동전·지폐 가득한 68만원 놓고 사라져 해남선 5년째 라면 500박스 전달...광주·여수에선 쌀 쾌척 어려운 이웃에 지갑 털어주고 귀농부부 18년째 농산물 기부

‘라면, 동전’. 누군가에게 대수롭지 않은 물품들이 소외 이웃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최근 ‘이명학 사건’ 여파로 기부가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익명의 기부천사들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온정을 전하며 찬바람이 부는 연말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함평군청 직원들은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을 받았다. 지난 18일 오후 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직원들 몰래 한 주민이 김정 비닐봉투를 사무실 내 탁자에 놓고 사라진 것이다.

직원들이 봉투를 열어보니 동전과 1000원, 5000원, 1만원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접힌 채 한가득 들어있었다. 현금은 세어보니 모두 68만1660원이었다.

봉투 속에는 ‘한겨울 추워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 주십시오’라는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다.

지난해 이맘 때에도 동전과 지폐 한가득 10만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투를 누군가 놓고 간 적이 있어 군 직원들은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2013년부터 5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1000만원 상당 라면 500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5일 어김없이 군청으로 라면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다.

익명의 후원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고 선물을 보낸다. 잠시나마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는 짧은 편지도 함께 보냈다.

광주시 동구와 여수에도 익명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광주 동구청에 지난 15

일 쌀 50포가 실린 1t 트럭이 도착했다. 동구에 쌀을 보낸 사람은 2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부를 한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날 여수시 만덕동 주민센터에는 지역 주민이라고만 밝힌 기부자가 20kg짜리 쌀 25포를 보냈다.

광주시 남구에서는 한 주민이 우연히 만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갑을 몽땅 털어준 사례가 있었다.

최근 딸과 함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하기 위해 주월1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 A씨는 우울증과 희귀성 질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럽게 울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를 만났다. A씨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봉투에 담아 B씨에게 건네달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고 주민센터를 떠났다. A씨는 매년 주민센터에 고액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70대 추정되는 한 어르신은 1년 동안 2ℓ 크기 생수병에 모은 15만원 상당 동전을 지난 9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건네주고 떠났다. 이 어르신은 “동부소방서 소속 정범준 소방관이 지난 10년 간 연탄 봉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

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찾아왔다”는 말을 남겼다.

화순에서는 임형노·공양덕 부부가 18년째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고구마, 친환경 쌀, 라면 등을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익명의 기부자가 누군지 추정은 되지않지만 구체적으로 묻지도 찾지도 않는 게 직원들 사이에서 불문율”이라며 “매년 이맘때 익명의 천사를 기다리곤 한다. 후원물품들이 도착하지 않으면 기부자의 행편이 어려워졌을까봐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따뜻한 동지족 나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원들이 지난 20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동지족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친할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손자’

용돈 안 준다며 폭행...격분한 큰아버지가 경찰 신고 체포

무안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10대 친손자가 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할머니는 경찰에게 손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박모(16)군은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무안군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인 김모(69)씨에게 용돈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목포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지내다 유증비로 쓰러고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이혼 후 오랫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최근 목포에서 생활했다.

경찰조사결과 할머니는 지속된 손자의 강요에 10만원을 건네 주었다.

하지만, 박군은 집요하게 용돈을 더 줄 것을 요구했으며, 통장과 돈을 내놓으라며 할머니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할머니가 5만원을 더 주자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자인 박군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친할머니는 친손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는 경찰에서 “손자가 통장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폭행하고 넘어트렸다”고 진술했다.

박군은 할머니와 같이 사는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용돈을 줄 것을 요구는 했지만 폭행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자에게 폭행당한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의 큰아들께 전화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에 격분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 만인 20일 밤 11시 30분께 목포에서 박군을 긴급체포했다.

박군은 경찰에서 “용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할머니가 때리려고 해서 손만 잡았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면서 “돈 또한 할머니가 줘서 받았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자인 박군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친할머니는 친손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사람 있으면 판매원...없으면 절도범

정수기 판매원, 농촌 돌며 장판 및 현금 등 83차례 훔쳐

“노인들이 장롱과 장판 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 쉽게 훔칠 수 있었습니다.”

고흥경찰은 “9년간 전남 등 농촌 일대 빈집 수십 곳에서 금품을 훔친 정수기 판매원 이모(42)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노인들이 장롱과 장판 밑에 돈을 감춰두고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30분께 고흥군 A(53)씨의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3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12월 8일까지 고흥과 영광, 담양, 여수, 전북 순창 등지에서 모두 83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집에 사람이 있으면 정수기 판매원으로, 사람이 부재중이면 절도범으로 돌변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대낮에는 마을회관에 가는 등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농가를 집중적으로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이씨에게서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주인 나모(53)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

관급 비리 이용부 보성군수 등 8명 구속기소 장성 싱크홀, 민관합동조사단 꾸린다

공무원 등 7명은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성군의 관급 계약 비리와 관련 이용부 군수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이날 오후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용부(64) 군수는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정략하며 1억

8000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범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감지 상자와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공무원 2명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장성 고려시멘트건설광산 인근 농지에 발생한 싱크홀<광주일보 12월15일 6면>의 원인을 분석하는 민관 합동 조사가 추진된다.

21일 장성시민연대와 황룡면공동대책위원회(가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무안군 전남도지사실에서 전남도, 장성군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준호 전남도의원,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 장성군 민원실장, 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황룡면 공동대책위원회는 면담에서 “건동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황룡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에 포함될 전문위원은 대책위에서 선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도지사 권한대행은 “장성군, 남부광산안전사무소, 고려시멘트, 철도시설공단, 대책위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남도는 보고를 누락한 장성군 관계자들에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크고 작은 싱크홀 10여곳이 발견됐지만 상부기관인 전남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출동 바쁜데 송년회 장기자랑 준비? 119대원들 반발에 취소



○...광주광산소방서가 송년회를 위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시켰다가 119대원들의 반발로 취소.

○...21일 광산소방에 따르면 오는 29일 송년회를 앞두고 각 부서별로 팀을 꾸려 무대에서 춤, 악기 연주, 마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119대원 사이에서 “연말을 맞아 출동하기도 바쁜데 장기자랑까지 준비해

야한다. 막내들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

○...행사를 기획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처음 송년회를 마련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자랑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는데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장기자랑 프로그램은 취소했으며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